

논리로 이해하는 로마서(18) 6장[3]

‘로마서 강해 18 (유익회 목사)’의 내용을 정리 및 보충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는가?>

[개역] 6: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2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¹ 그리고 곧이어 3절에서는 언제-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침례)를 통하여’라고 말합니다. 세례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연합’입니다. 우리는 홀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baptized into Christ’라고 번역했습니다.²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께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고(baptized into his death),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번역했는데, 시간적 의미를 사용하여 ‘세례를 받을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6:3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번역된 의미로만 본다면 ‘세례 받는 순간’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될 수

¹ 6:2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² [NIV] Or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례 받을 때’라는 것은 물리적 시간이 아닌 상징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오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오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아니고, 그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오늘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물리적 시간’, 즉 실제 시간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물리적 시간 즉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표현하여 년도와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³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6:4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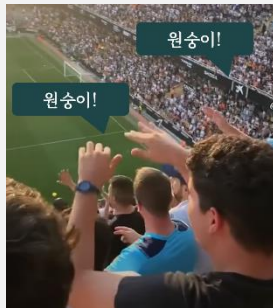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은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였는데, 회개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인들인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입니다. 예수님이 물 속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셨고

³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는 구원파에서는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원파 안에서도 여러 분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구원파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 받은 시간’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음을 내가 깨달은 시간’입니다. 그것이 구원 받은 날짜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은 ‘내가 깨달은 시간’마저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물 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았으니, 그 세례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상징적 매개체**, 즉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징적’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세례의 효력이 그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상징적’ 매개체가 아니라 ‘실재’ 매개체 (혹은 ‘물리적’ 매개체)라면,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비니시우스 (1)]



2023년 5월 스페인에서 열린 프로축구 경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대방의 스페인 관중이 상대방의 한 선수를 향해 ‘원숭이’ ‘바나나를 먹여라’라고 하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 비난의 대상은 상대팀(레알 마드리드)의 흑인 선수 비니시우스였습니다. 흑인 선수로서 대단한 기량을 발휘했던 그에게 시기심을 느낀 관중들이 극심한 인종차별적 야유를 퍼부은 것입니다.

그가 당한 것은 단지 모욕적 야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팀 선수들은 그에게 매우 위험한 테클을 가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경기 중에 거친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파울을 당하는 횟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라운드에서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팀 흑인 선수를 향하여 ‘원숭이’라고 야유를 퍼붓는 것이 과연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스페인 사람들 중에서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비율은 무려 59%입니다. 그들 중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59%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토록 경악스러운 인종차별이 벌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원숭이’라고 외친 이 사람들은 모두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나머지 41%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자칭 ‘신앙인’들이 오히려 더 인종차별을 많이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흑인 노예를 들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가장 많은 수의 흑인 노예를 부렸던 지역은 바로 ‘바이블 벨트’ 지역이었습니다. 즉 미국에서도 가장 교회가 많고 신앙이 좋다는 지역에서 가장 혹독하게 노예를 부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인종차별의 상징인 KKK단도 교회에서 시작된 단체이며, 그 수가 현재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회원의 상당수는 ‘교회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심각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흑인 선수에게 ‘원숭이’를 외쳤던 사람들, 더 나아가 KKK를 조직하여 흑인들을 고문하고 살해까지 한 ‘교회 사람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곳에서 KKK단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과연 그곳이 진짜 천국이며 그 복음이 진짜 복음(Good New)일까요?⁴

⁴ 물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킨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겠지만,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는 사실은, KKK단의 많은 ‘교회 사람들’이 말로만 회개하거나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임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 하나는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부정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특히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결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로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롬 3:31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6:1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6:15 우리가 ..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 ...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위의 세 구절의 구조와 의미는 동일합니다.

[3장 1절]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니, 율법은 필요 없는가?

절대 그릴 수 없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된다.

니다.

[6장1절]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어떨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는가?

[6장15절]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니, 죄를 좀 지어도 괜찮은 것 아닌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로마서’라고 하면 우리는 이신칭의(以信稱義)⁵ 교리를 머리 속에 떠올립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대표적인 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신칭의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지, 구원과 행위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혜 받은 사람들)은 **구원과 은혜에 걸맞은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구원과 행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오해할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그런 것 처럼, 로마 교회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죄 많이 짓고 살아도 문제없다’고 생각할까 걱정이 되었는지,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지만 ‘그럴 수 있다’를 외치는 사람들〉

⁵ 이신칭의란 오직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로마서의 핵심 교리입니다.

로마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천년 간의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예에게 채찍질하고 고문을 해도,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로마서의 ‘오직 믿음으로’인데, 정작 사도 바울이 그들의 주장을 듣는다면 매우 어이없어 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반복하여 ‘그럴 수 없다!’라고 강조했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로마서를 어떻게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격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범죄한 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주님께서는 받아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이전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태연히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범죄하더라도,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뻔뻔하게 죄 의식 없이 계속해서 인종차별 등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구원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핵심] 이신칭의(以信稱義):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지만,
믿고 난 후에는 구원과 행위가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은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한 의미는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들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아래 구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6: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내용도, 앞서 ‘그럴 수 없느니라’에서 강조한 내용과 다를 바 없습니다.

-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 우리가 죄 용서받은 후,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인가?
-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죄악된 우리의 육신을 죽게 하는 것이다.
-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이 논리는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굳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

적인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 책(논리로 이해하는 성경 시리즈)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정통 복음’의 내용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식과 이성**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들은⁶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파의 주장은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회개하고 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는 단 한번으로 충분하다.’⁷ 그런데 만일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한번만 회개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혼돈과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파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구나 그것이 잘못된 교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 ‘그럴 수 없느니라’와 ‘우리가 알거니와’는
이신칭의 교리가 잘못 이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강력한 표현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비니시우스 (2)]

스페인에서 있었던 처참한 인종차별적 경기 이후, 비니시우스의 소속팀인 레

⁶ 고후 11:4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⁷ 이것 역시 구원파의 각 분파마다 조금씩 다르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 마드리드의 첫 홈 경기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팀 동료들 전원은 비니시우스의 등번호 20번과 그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홈 관중 앞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비니시우스다’라는 의미이며, 인증차별에 맞서서 함께 싸우겠다는 각오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날 비니시우스의 유니폼을 입은 팀 동료 선수들의 상당수는, 아마도 기독교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는 이 아름다운 정신은 원래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성품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속에 넣어 주신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의의 무기>

[개역]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번역 비교] 새번역: 의의 연장 / KJV, NIV: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새번역이나 영어 성경 등은 ‘연장(도구)’라는 다소 순화된 번역을 사용하였으

나, 개역 성경은 ‘무기’라는 강력한 단어를 써서 번역했습니다.⁸ 우리 인간들의 지체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하게 사용될 때는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 선하게 사용될 때는 ‘의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교회는 의를 향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위한 싸움은 서로 연합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위의 경우에서와 같이, 모든 팀원들이 힘을 합하여 의로운 싸움을 싸울 때, 강력한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될 수 없다〉

6:16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일반 학문들은 인간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결코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둘 중 하나의 종이 되는데, ‘죄의 종’이거나 ‘순종의 종’이 됩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2021년 1월 23일 거제도 인근에서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김종안씨(56세)가 실종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⁸ 개역 성경의 ‘무기’라는 번역이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 의해 잡혀가시는 요한복음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도 ‘무기’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요18:3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결국 사망처리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상 문제가 진행되자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종안씨가 2살 때 그를 버리고 떠났던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서 보상금 전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2살 때 버림을 받았던 김종안씨와 그의 누나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였는데, 친모는 54년간 단 한번도 아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 그가 간신히 어머니 소재를 파악하여 찾아갔을 때도, 그를 문전박대 했던 친모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비정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사망 보상금 전액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 친모는 자신이 재혼하여 낳은 딸의 남편(자신의 사위)와 공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보상금을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판사가 하도 안타까워서 ‘보상금을 당신의 친딸인 김종안씨의 누나와 나 누어 가지라’고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상금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긴 법적인 다툼을 벌인 끝에, 친모는 결국 보상금 전액을 받는 판결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코흘리개 시절부터 김종안씨와 가난 속에서 힘겹게 정을 나누며 살아온 누나에게는 단 한 톨의 보상금도 돌아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삶은 사망이요!〉

23 죄의 삶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신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이 본문은 세 가지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하나님의
값은	은사(선물/gift)는
사망	영생

[죄] 죄를 지은 후에 받는 결과는 사망인데, 이것은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샀(임금/급여)으로 받는 것입니다. ‘값’으로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⁹ 로마 군인들의 봉급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죄라는 것은 방안에 가만히 누워서 짓는 죄도 있겠지만, 부지런히 일하며 짓는 죄가 많습니다. 위의 사건에서 보더라도,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보상금 전액을 받아가는 과정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죄를 짓는 과정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부지런한’ 일이었습니다.

그 친모는 ‘나와 사위가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보상금(값/임금)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으로만 볼 때는 정당한 권리이고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할 수 없이) 생모가 승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죄 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니라 ‘열심히 죄를 지은 결과’이며 그 샀(임금)은 사망인 것입니다. 세상적-단기적으로 볼 때는 보상금을 샀으로 받았다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영적-장기적으로 볼 때는 죽음(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¹⁰

⁹ ὀψώνιον (옵소니온 - 임금, 봉급)

¹⁰ 개개인의 삶에 대하여 영생의 결과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일한 대가(값)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은사)¹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생을 받을 만한 일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값없이 선물(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본 문서는 헤세드교회 홈페이지 <http://hsdch.org>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설명합니다. 후에 이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¹¹ χάρισμα (카리스마: 선물, 은사)